

학부모의 가족탄력성, 아동학대예방교육경험, 학대행위인식의 구조적 관계 분석

황환^{1*}, 이병록²

¹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사, ²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The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chool Parents' Family Resilience, Experience of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and Awareness of Abuse Behaviors

Hwan Hwang^{1*}, Byoung-Rock Lee²

¹Ph.D., Dept.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²Professor, Division of Social Welfare, Ko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학부모의 가족탄력성, 아동학대예방교육경험, 학대행위인식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자료는 경기도 양평군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자녀로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최종 389부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자료분석은 주요 변수들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학부모의 가족탄력성과 아동학대예방교육경험이 학대행위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부모의 가족탄력성과 학대행위인식 간의 관계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경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가족탄력성 증진서비스를 포함한 패키지 형태의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의 제공과 아동학대예방서비스 전달체계의 보완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학부모, 가족탄력성, 아동학대예방교육경험, 학대행위인식, 구조방정식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s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family resilience, experience of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and awareness of abuse behaviors. Data were collected from 389 school parents residing A metropolitan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he variable of the family resilience and the experience of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among school parents had positive statistic association with the awareness of abuse behaviors. 2) the experience of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was found to mediate between the family resilience and the awareness of abuse behaviors. Based on these study results,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to improve the awareness of school parents' abuse behaviors in terms of the enhancement of their family resilience and service delivery system for child abuse prevention.

Key Words : School parents, Family resilience, Experience of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Awareness of abuse behaviors, Structural equation.

*Corresponding Author : Hwan Hwang(dosah33@naver.com)

Received July 9, 2019

Accepted October 20, 2019

Revised September 2, 2019

Published October 28, 2019

1. 서론

최근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학대가해자가 부모인 점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22,367건이었으며, 학대발생장소는 가정(17,989건, 80.4%) 이었고, 가해자는 부모(17,177건, 76.8%)가 가장 많았다[1]. 학대피해아동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상해나 장애, 사회적 관계 및 적응의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한다[2,3].

다수의 연구자들은 아동학대의 원인으로서 학대행위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문제를 지적한다. 이들은 체벌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이 훈육과 학대 사이에 모호하게 형성되었으며[4,5], 방임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도 명확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다[6]. 학부모의 학대행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가 실제 학대행위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신이 아동에게 한 행위가 학대인지 아닌지조차 알지 못하기에 아동학대행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7].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어떤 행위를 학대로 인식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문제가 발생한 가족의 상당수는 낮은 가족소득이나 이혼, 부정적인 가족관계 등 가족 안에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다[8,9]. 가족 스트레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하나 한편으론 성장의 기회로 이해하며 가족구성원 개인이나 전체가 보유한 자원이나 강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한다[10,11]. 아동학대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예방하고 극복하는데 유용한 강점으로서 가족탄력성이 있다. 가족탄력성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낙관적인 미래에 대한 공유된 희망과 신념, 구성원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등을 제공한다[12]. 가족탄력성이 풍부한 가족은 서로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아동학대와 같은 가족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처방안을 배우고 실천하고자 노력한다[13].

가족탄력성은 특정 문제행위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면서 개인의 행위인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가족탄력성이 풍부한 가족구성원은 문제행위에 대한 인식을 서로 공유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12].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탄력성은 문제상황에 노출된 개인의 자기효능감[14]이나 가족스트레스 인지[15], 자살생각[16], 자활의지[17] 등 어느 행위에 대한 개인의 심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

이는 가족탄력성이 특정 행위에 대한 개인의 인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가족탄력성이 학부모의 학대행위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가족탄력성은 위기상황에 대해 가족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협력적인 문제해결방식을 증진시킨다[12]. 가족탄력성은 위기대응차원에서 가족구성원으로 하여금 의사결정과정을 공유하면서 문제상황에 대한 단계적인 해결책을 선정하고 실천하도록 촉진한다[18,19]. 가족탄력성이 풍부한 학부모는 아동학대문제에 대해 다른 가족구성원들과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방책을 찾고 실천하고자 할 것이다[20]. 즉, 학부모의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찾기 위해 아동학대예방교육에 참여할 것이고, 이로써 학대행위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가족탄력성은 학부모의 학대행위인식과 아동학대예방교육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며, 학부모의 아동학대예방교육의 참여는 학대행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예방교육이 가족탄력성과 학대행위인식을 매개할 것으로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학력과 연령에 따라 학대행위인식이 차이 있다는 연구결과[24]를 반영하여, 학부모의 성별, 연령, 학력 등 인구사회적 특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26].

본 연구의 의의는 가족탄력성과 학부모의 학대행위인식 간의 관계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가족탄력성, 아동학대예방교육, 학대행위인식 간에 나타나는 선형적 인과관계가 아닌 구조적 인과관계 구조를 규명할 수 있고, 가족탄력성 증진방안을 포함하는 아동학대예방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등 실천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학대행위인식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대체로 영유아 아동에 대한 돌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경향이 있다[21-23]. 초등학생 이상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산 지역 학부모의 아동학대인식을 조사한 연구[24]가 있었고, 학대행위인식의 영향요인으로서 양육스트레스나 자아존중감 같은 부모의 특성[25]이나 가족관계[26]를 다룬 연구가 있을 뿐, 학대행위인식과 가족탄력성과의 관계를 논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학부모의 학대행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탄력성과 아동학대예방교육의 구조관계를 규명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목적은 학부모가 인식한 가족탄력성과 학대행위인식의 관계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경험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의 가족탄력성이 학대행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둘째, 학부모의 가족탄력성과 학대행위인식의 관계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모형은 학대행위인식을 종속변수로, 가족탄력성을 독립변수로, 아동학대예방교육경험을 매개변수로, 성별, 연령, 최종학력, 월소득, 직업유무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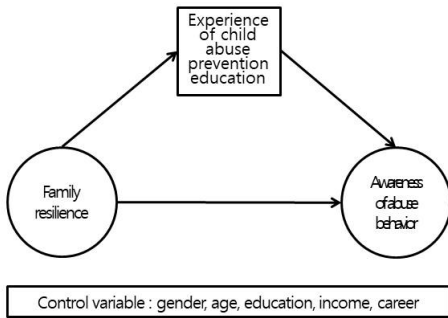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학부모의 학대행위인식과 영향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군에 거주하는 초·중학생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2017년 학대피해아동의 61.4%가 초·중학생이고, 양평군의 아동학대신고접수율이 전국 대비 0.2%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관련요인의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1]. 표집은 12개 하위 행정지역의 인구분포 비율을 고려하여 설문지를 할당했으며, 사전교육을 이수한 조사원 13명이 조사목적을 설명하고 참여 동의를 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5월 19일부터 6월 14일까지이며, 404부 중 부실한 응답의 15부를 제외하고 총 389부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종속변수

학대행위인식은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와 방임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학대행위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6,7,24,27]를 참고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행위인식은 각 8문항씩 구성하였고, 방임인식은 14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1=전혀 학대가 아니다, 5=틀림없는 학대이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행위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대행위인식의 전체 신뢰계수는 .953이었으며, 유형별 신뢰계수는 신체적 학대행위인식 .852, 성적 학대행위인식 .851, 정서적 학대행위인식 .890, 방임인식 .935로 나타났다. 한편,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를 높이고, 종속변수 측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하위요인별로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실시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28].

2.3.2 독립변수

가족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Walsh의 이론을 기초로 박주연[29]이 개발한 가족탄력성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을 질문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용이한 설문조사를 위해 가족탄력성의 하위 개념을 대표하는 5문항을 선택하여 일부 수정하고 2문항을 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인지한 가족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계수는 .872이었다.

2.3.3 매개변수

아동학대예방교육경험은 학부모가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했으며, '1=있음, 2=없음'으로 측정하였고, 더미변수(1=있음, 0=없음)로 전환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2.3.4 통제변수

통제변수로서 성별은 더미 변수(1=남, 0=여)로 전환시켰고, 연령은 만나이인 '세', 최종학력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학졸업, 대학원졸로 측정하여 '1=대졸이상', '0=대졸미만'으로 전환하였다. 월소득은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을 '만원'으로 측정하였으며, 직업유무는 현직종을 파악한 후, '1=직업있음, 0=직업없음'으로 전환하였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주요 변수들의 인과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

해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였다. 먼저 주요 변수의 이상치를 제거하고, 결측자료에 대해 평균대체방법을 사용했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료의 정규성(normality)과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개념측정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의 추정방법으로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은 부트스트래핑 검정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TLI, CFI, RMSEA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TLI, CFI는 .90이상, RMSEA는 <.05면 좋은 적합도,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면 보통 적합도, >.10이면 나쁜 적합도로 보는 기준[30]을 적용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수의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in variables

| Latent variable | Measured variable | Mean | Skewness | Kurtosis |
|------------------------------|-------------------|------|----------|----------|
| Awareness of abuse behaviors | total | 4.42 | .955 | .114 |
| | physical | 4.46 | -1.131 | 3.211 |
| | sexual | 4.78 | -.882 | -.343 |
| | emotional | 4.27 | .253 | -1.401 |
| | neglect | 4.17 | .363 | -.982 |
| Family resilience | total | 4.00 | -.853 | .555 |
| | f1 | 4.13 | -.136 | -.064 |
| | f2 | 4.17 | -.182 | -.163 |
| | f3 | 4.07 | -.449 | .904 |
| | f4 | 3.81 | -.270 | .533 |
| | f5 | 3.97 | -.191 | -.019 |
| | f7 | 3.55 | -.130 | -.184 |
| | f7 | 4.32 | -.364 | -.666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348명, 89.5%)이 남성보다 더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41.58세(표준편차=6.134)이었고, 월평균소득은 403.05만원(표준편차=161.173)이었다. 교육수준은 대졸미만(202명, 51.9%)이 대졸이상보다 더 많았으며, 직업있음(283명, 72.8%)이 없음보다 더 많았다. 아동학대예방교육경험은 없음(231명, 59.4%)이 있음보다 더 적었다.

학대행위인식의 수준과 관련하여, 성학대행위인식이

평균 4.78점으로 가장 높았고, 방임인식은 평균 4.1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족탄력성 전체는 평균 4.00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높았다. 주요 변수의 정규성을 파악하고자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을 검토한 결과, 왜도 2이하, 첨도 4이하의 정규성 기준[31]을 충족하였다. 또한 주요변수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122 ~ .220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수준은 아니었다.

3.2 모형검증

3.2.1 측정모형 분석 결과

측정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는 TLI=.907, CFI=.928, REMSEA=.091로 양호하였다. 또한 잠재변수와 각 측정변수 간 경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2. Analysing measurement model

| Latent variable | Path | Nonstandardized coefficient | Standardized coefficient | Standard error | t |
|------------------------------|-------------|-----------------------------|--------------------------|----------------|------------|
| Awareness of abuse behaviors | → physical | 1.000 | .758 | | |
| | → sexual | .107 | .278 | .021 | 5.153 *** |
| | → emotional | 1.380 | .898 | .088 | 15.689 *** |
| | → neglect | 2.206 | .772 | .148 | 14.895 *** |
| Family resilience | → f1 | 1.000 | .453 | | |
| | → f2 | 1.414 | .681 | .170 | 8.324 *** |
| | → f3 | 1.361 | .651 | .167 | 8.166 *** |
| | → f4 | 1.661 | .791 | .188 | 8.821 *** |
| | → f5 | 1.701 | .875 | .187 | 9.101 *** |
| | → f6 | 1.592 | .828 | .178 | 8.955 *** |
| | → f7 | 1.257 | .635 | .156 | 8.076 *** |

$\chi^2(df=43)=4.197***$, TLI=.907, CFI=.928, REMSEA=.091

*p<.05, **p<.01, ***<.001

3.2.2 구조모형 분석 결과

주요 변수의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한 결과, RMSEA=.060, TLI=.901, CFI=.930으로 나타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가족탄력성이 아동학대예방교육경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01$, $p<.001$). 이는가족탄력성이 증가할수록 아동학대예방교육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아동학대예방교육경험이 학대행위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16$, $p<.05$). 이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을 경험한 학부모의 학대행위인식이 경험하지

Table 3. Analy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Latent variable | Path | Path coefficient | | Standard error | t |
|--|--|-----------------------------|--------------------------|----------------|----------|
| | | Nonstandardized coefficient | Standardized coefficient | | |
| Family resilience | → Experience of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 .314 | .201 | .088 | 3.554*** |
| Experience of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 → Awareness of abuse behaviors | .717 | .116 | .333 | 2.153* |
| Family resilience | → Awareness of abuse behaviors | 1.688 | .175 | .579 | 2.918** |
| $\chi^2(df=97)=2.418***$, TLI=.901, CFI=.930, REMSEA=.060 | | | | | |

*p<.05, **p<.01, ***<.001

않은 학부모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가족탄력성이 학대행위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175$, $p<.01$). 이는 가족탄력성이 증가할수록 학대행위인식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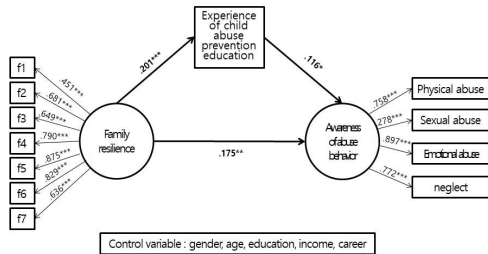


Fig. 2. Mediating model of main variables

3.2.3 매개효과 검증

주요 변수들의 구조적 관계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경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부트스트래핑 검정을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 측정값은 .023이었으며, 95% 신뢰구간의 하한 값과 상한 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 결과는 가족탄력성에서 학대행위인식으로의 직접적인 경로가 유의한 상태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아동학대예방교육경험이 가족탄력성과 학대행위인식을 부분매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4.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

| Path | Nonstandardized coefficient | Standard error | 95%CI | |
|--|-----------------------------|----------------|-------|-------|
| | | | Lower | Upper |
| Family resilience → Experience of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 .023* | .011 | .005 | .043 |
| Awareness of abuse behaviors | | | | |

*p<.05, **p<.01, ***<.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학부모의 가족탄력성이 아동학대예방교육경험을 매개변수로 하여 학대행위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른 학대행위유형에 비해 방임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의 모호함이 나타났다. 학부모의 가족탄력성은 학대행위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학부모의 가족탄력성과 학대행위인식간의 인과적 관계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경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학부모가 인지하는 가족탄력성이 아동학대예방교육경험과 학대행위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아동학대를 가족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안선경, 양지혜, 정익중의 연구[32]에서는 가족응집력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보호요인임을 보고하였고, 윤혜미, 장화정, 고미영은 아동학대를 가족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학대상황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가족탄력성과 같은 기능을 발견하는 것에 주목하였다[33]. 이는 아동학대행위를 개인이 아닌 가족의 문제로 이해하여, 가족탄력성이 아동학대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배경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아동학대와 가족관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한 이들 선행연구와는 달리 학부모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통제한 가운데, 학부모의 가족탄력성에 주목하여 아동학대예방교육경험과 학대행위인식과의 관계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한편, 학부모의 학대행위인식에 가족탄력성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경험이 매개효과를 나타낸다는 본 연구결과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이 학대행위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는 다수의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조진희[34]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동 성학대 예방 교육 전후에 성학대 태도를 측정하여 그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김수인과 강지영[3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학대행위인식, 신고의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아동학대예방교육이 학대행위인식

증진에 기여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전체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의 참여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결과는 학부모의 학대행위인식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경험의 영향력이 .116인 반면에 가족탄력성의 영향력이 .175로 나타나 학대행위인식증진에 대해 아동학대예방교육경험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가족관련 요인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학부모의 가족탄력성과 학대행위인식의 관계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는 기존의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콘텐츠에 가족관점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의 아동학대교육프로그램은 피해아동 부모 및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가족기능강화, 심리치료 등 사후대책에 집중하며[1], 가정, 병원, 학교 등의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에는 강의, 역할극, 관찰 등을 활용하여, 양육기술향상,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과 행동개선을 위한 활동이 포함되었다[36]. 특히 학부모의 방임인식이 가장 낮은 점을 반영하여 기존의 아동학대예방교육 콘텐츠에 가족 간 학대행위, 특히 방임행위인식의 공유와 대안마련을 위한 상호협력적인 의사소통 활동을 추가하여 가족탄력성과 학대행위인식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제언하자면, 첫째, 학대피해아동과 가해부모는 물론 다른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아동학대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배포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에 사이코드라마나 부모놀이치료[37]와 같은 근거 기반의 가족탄력성 증진활동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의 이론 강의에 가족탄력성 향상 활동을 추가하여 패키지 형태로 아동학대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역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패키지에는 참여가족의 경험이나 자원, 강점 등을 프로그램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 상담이나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례관리를 추가할 수 있다.

셋째,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산 부족과 종사자들의 많은 업무량을 고려해 볼 때, 패키지 형태의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의 추가는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이어져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아동학대예방서비스 전달체계의 인력과 예산을 충원하여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를 가족의 문제로 인식하고, 가족탄력성, 아동학대예방교육, 학대행위인식 간에 나타나는 구조적 인과관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

에도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대상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둘째, 측정도구의 문항선정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도에 의한 선택과정이 있었으므로 측정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셋째, 학대행위인식에 대한 가족관련 요인에는 가족탄력성 이외에 다른 요인도 존재할 수 있으며,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그 영향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Health and Welfare Ministry &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8). *A Report of the National Child Abuse*. Sejong : Health and Welfare Agency.
- [2] J. S. Ha & Y. S. Kim. (2019). About Child Abuse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Parents and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4), 189-196. DOI : 10.5762/KAIS.2019.20.4.189
- [3] Y. H. Kim & C. K. Han. (2017). Path Analysis on Child Abuse and Neglect, Self-esteem, and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among Children at Community Children Cent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58, 141-170.
- [4] A. F. Collier, F. H. McClure, J. Collier, C. Otto & A. Polloi. (1999). Culture-specific Views of Child Maltreatment and Parenting Styles in a Pacific-island Community. *Child Abuse & Neglect*, 23(3), 229-244. DOI : 10.1016/S0145-2134(98)00129-X
- [5] J. O. Oh & K. W. Lee. (2015). A Study for Preschool Child Parents Awaring and Experiencing Discipline and Abus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0(2), 247-271. DOI : 10.13049/kfa.2015.20.2.247
- [6] J. B. Choi. (2008). Korean Parents' Perception of Child Neglect. *Dongkwang*, 104, 1-38.
- [7] Y. S. Kim. (2011). A Comparison between Parents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in their Awareness toward Child Abuse.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3(4), 63-82.
- [8] S. W. Kim. (2016). A Study on Exploring Multi-type Maltreatment Experiences, Parental and Family Environment Characteristic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20(4), 583-608. DOI : 10.21459/kccr.2016.20.4.583
- [9] K. H. Kim, D. M. Yum & B. Ryou. (2019). Profile Analysis of Abusive Families Based on Child Safety and Risk Assessment. *Korean Journal of Victimology*, 27(1), 163-189.
- [10] B. J. Kaplan, B. Wilson, D. Dewey & S. Crawford. (1998). DCD may not be a Discrete Disorder. *Human*

- Movement Science*, 17(4-5), 471-490.
DOI : 10.1016/S0167-9457(98)00010-4
- [11] I. J. Lee, Y. S. Bang & B. Y. Son. (2015). The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on Parenting Stress and Problem-Solving Ability of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9(1), 251-261.
DOI : 10.21184/jkeia.2015.03.9.1.251
- [12] F. Walsh. (2016).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the Guilford Press.
- [13] W. J. Mullin & M. Arce. (2008). Resilience of Families Living in Poverty.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1(4), 424-440.
DOI : 10.1080/10522150802424565
- [14] H. J. Choi & I. S. Lee. (2009).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on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7(2), 175-194.
- [15] H. Y. Lee, J. Y. Park & Y. H. Cho. (2013). The Influence of Family Resilience upon the Perception of Family Stress-Focusing on Married Middle aged Men. *Journal of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7(4), 39-56.
- [16] C. G. Kim. (2018).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School Violence, Family Resilience, Hopelessn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hild welfare*, 61, 51-80. DOI : 10.24300/jkscw.2018.3.61.51
- [17] D. H. Jang & J. E. Kim. (2017). A Study about how the Family Resilience of Self-sufficiency Program's Participant affect the Willingness for Self-efficacy: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8(2), 295-312. DOI: 10.22143/HSS21.8.2.16
- [18] G. S. Kim. (2016). The Influence of Family Resilience on Family Relationship who have Childre with Disability: Mediating Effects of prognosis of disability.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31, 163-192.
- [19] T. J. D'Zurilla & A. M. Nezu. (1990). Development and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Social Problem-solving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2, 156-163.
DOI : 10.1037/1040-3590.2.2.156
- [20] D. Cicchetti & S. L. Toth. (1998).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st*, 53(2), 221-241.
DOI : 10.1037/0003-066X.53.2.221
- [21] Y. E. Kim. (2016).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Self-assessment and Child abuse Perception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cognitive Enhancement and Intervention*, 7(3), 17-30.
- [22] J. W. Han. (2017). The Cognition and Reporting Attitude toward Child Abuse according Job Stress Levels of the Kindergarten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and Review*, 21(1), 237-261.
- [23] M. A. Ryu, H. J. Yun & B. H. Lee. (2019). Relationships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s of Child Abuse and Sensitivity to Human Rights.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4(2), 35-53.
DOI : 10.16978/ecec.2019.14.2.002'
- [24] S. O. Hong & O. K. Lee. (2010). Parents of Elementary Students Perception of Child Abuse in Busan.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9(3), 75-90.
- [25] B. R. Lee & H. Hwang. (2018). The Effect of School Parents' Parenting Stress on the Child Abuse Awarenes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Th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1), 535-542.
DOI : 10.14400/JDC.2018.16.11.535
- [26] B. R. Lee & S. H. Jung. (2019). The Effect of the Family Relationship on School Parents' Child Abuse Awareness for Life Care. *Journal of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3(3), 279-290.
DOI : 10.21184/jkela.2019.4.13.3.279
- [27] S. K. Kwon & E. J. Lee. (2016). Awareness of Child Abuse and Category of Acceptance 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Regulation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3(3), 347-362.
- [28] M. Matsunaga. (2008). Item Parceling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primer. *Communication Methods and Measures*, 2(4), 260-293.
DOI : 10.1080/19312450802458935
- [29] J. Y. Park & K. S. Kim. (2012). The Impact of Family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affecting the Psychological Welfare of Single Par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7(1), 23-46.
- [30] L. Hu & P. M. Bentler.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l versus New Alternativ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DOI : 10.1080/10705519909540118
- [31] S. H. Hong, M. L. Malik & M. K. Lee.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 636-654.
DOI : 10.1177/0013164403251332
- [32] S. K. Ahn, J. H. Yang & I. J. Chung. (2012). Meta-analysis on Protective and Risk Factors in the Family Domain affecting Child Abus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8, 331-358.
- [33] M. Y. Ko, W. J. Jang & H. M. Yoon. (2013). A Qualitative Study of the Experience of Reflecting Team Members of the Narrative Therapy for Family Accused of Child Abuse.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17(4), 699-737.
- [34] J. H. Cho. (2007). The Effect of the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Program on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Attitude towards Child Sexual Abuse. *Korean Journal of Child Welfare*, 5(3), 19-37.
- [35] S. I. Kim & J. Y. Kang. (2017). The Effect of Child Maltreatment Prevention Education on the

Intervention to report Child Maltreatment among Future mandatory Reporters: The Mediating Effects of Knowledge of Recognizing and Reporting Child Maltreat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55, 373-400.
DOI : 10.17997/SWRY.55.1.13

- [36] Y. K. Lee & G. E. Kim. (2019). Effectiveness of child abuse prevention program: Overview of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36(1), 81-92.
- [37] H. J. Jung & M. K. Jang. (2016). The Effect of Filial Therapy on the Self-esteem, Sibling Relationship ADHD Children and Family Resilience of Their Families.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14(2), 41-59

황 환(Hwan Hwang)

[정회원]



- 2008년 8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6년 2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외래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 노인복지, 아동학대, 우울자기관리

· E-Mail : dosah33@naver.com

이 병 록(Byoung-Rock Lee)

[정회원]



- 1998년 2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05년 2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6년 2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시설, 직무만족, 아동학대

· E-Mail : brlee@konyang.ac.kr